



연간일정 및 종합반 모집안내

2021
법원행정고등고시 동차합격 대비

법원사무직

“법학교육의 名家, 한림법학원이 제대로 시작합니다.”

법원행시 초단기 합격을 위한 최적의 커리큘럼
제대로 된 시작과 끝을 위한 법학전문 강사진의 명강의

강사진



김남훈 변호사

민법, 민사소송법

약력

- (현) 월비스 한림법학원 민사법 전임
- (현) 법무법인 현무 파트너 변호사
- 사시 제47회 합격

저서

- Essential 민법 [도서출판 월비스]
- Essential 민사소송법 [도서출판 월비스]
- Essential 민사법 핵심암기장 [도서출판 월비스]
- Fouette 민사법 종합사례연습 [도서출판 월비스]
- Fouette 민사법 핵심지문 총정리 [도서출판 월비스]
- 최근 5개년 민사법 판례정리 [도서출판 월비스]



이재상 박사

형법

약력

- (현) 월비스 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등 특강강사
- 사법시험위원(제44회, 제45회)
- 한국 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정회원
- 독일 Freiburg 대 법과대학 (법학박사)

저서

- 로스쿨 형법 [도서출판 월비스]
-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도서출판 월비스]
- 새로운 형법 CASE의 바이블 [도서출판 월비스]
- 새로 쓴 더형법 [도서출판 월비스]
- 최근 3개년 형법 판례정리 [도서출판 월비스]
- 새로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 [도서출판 월비스]
- 새로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도서출판 월비스]
- 로스쿨 진도별 형법 사례 답안지 핸드북 [도서출판 월비스]



이재철 교수

형법, 형사소송법

약력

- (현) 월비스한림법학원 형사법 전임
- 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교시특강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 동 대학원 졸업

저서

- Law Man 형법 [도서출판 월비스]
- Law Man 형사소송법 [도서출판 월비스]
- Law Man 형사특별법 [도서출판 월비스]
-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도서출판 월비스]
-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도서출판 월비스]



선동주 교수

헌법

약력

-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헌법 전임
- (현) 윌비스 고시학원 헌법 전임
- (현)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헌법 전임

저서

- 헌법집중 (도서출판 윌비스)
- 5급공채 헌법집중 (도서출판 윌비스)
- 헌법집중 핵심암기장 (도서출판 윌비스)
- 헌법집중 핵심지문총정리 (도서출판 윌비스)
- 5급공채 헌법집중 핵심지문총정리 (도서출판 윌비스)
- 최근 3개년 헌법판례정리 (도서출판 윌비스)
- 선동주 헌법 기출문제해설집 (도서출판 윌비스)
- 로스쿨 헌법 사례연습 (도서출판 윌비스)



임응찬 변호사

행정법

약력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전]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 [전] 법무법인 인연인 구성원 변호사
- (현) 법무법인 도원 구성원 변호사
- (현) 대기업 법무팀 출강
-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공법전임



한림법학원 소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면
29년 전통의 한림법학원과 함께하십시오.

월비스 한림법학원은 **수험법학 전문학원**으로써
사법시험 1-2차 1등 학원의 명성과 1등 강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대비 전 과정을 완벽하게 진행했으며,
변호사시험 대비 과정을 최초로 개설하고 종합반을 최초로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수험법학 전문가,
한림법학원의 전문 강사진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최적의 강의, 검증된 교재, 효율적 프로그램으로
합격하십시오.

법원행시 초단기 합격, 단 하나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이해와 정리를 통해 암기량을 줄이는 혁신적인 커리큘럼
- 다독을 통해 최적의 수험적합성을 추구하는 6회독 프로그램
- 2020년 종합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검증된 관리형 종합반

● 모집전형

- 학사기간 : 2020.12 ~ 2021.10
- 모집인원 : 선착순 100명 정원제
- 모집기간 : 2020.12.31까지

● 개인별 심층상담

- 상담기간 : 2020.12.31까지
- 상담시간 : 오전11시~오후5시
- 상담신청 : 1544-1881(ARS 1) 전화로 사전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상담장소 : 한림법학원 강남분원
(역삼역 4번출구에서 3분거리, 강남구 테헤란로19길 18(역삼동))
- 상담내용 : 법원행시 동차합격 종합반 프로그램 안내 및 개인별 학습계획 수립

● 수험전략 설명회는 1:1심층상담으로 대체됩니다.

~~12/19(토) 오후 2시~~ → **1:1 개별 심층 상담**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정부 방침에 따라 설명회를 대신하여 1:1 개별 심층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예약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일시 : 2020.12.31까지
- 상담시간 : 오전11시~오후5시
- 상담예약 : 1544-1881(ARS 1→4)
- 상담장소 : 한림법학원 강남분원 (역삼역 4번출구에서 3분거리, 강남구 테헤란로19길 18(역삼동))
- 주의사항 : 내방시 QR코드 출입체크, 체온체크 필수입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 간략한 안내

01

응시자격

연령제한 - 20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학력, 경력제한 없음

02

시험과목

	1차 (선택형)	2차 (논문형)
법원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영어·한국사는 각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등록방법·등록일정등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03

일정 (2020년 기준)

원서접수 2020.05.28~2020.06.08

1차

시험 | 2020.07.28(화)

합격자발표 | 2020.09.10(목)

2차

시험 | 2020.10.23(금)~2020.10.24(토)

합격자발표 | 2020.11.24(화)

인성검사 | 2020.11.26(목)

3차

시험 | 2020.12.02(수)

합격자발표 | 2020.12.11(금)

04

합격자통계

		응시인원	합격인원	컷라인
1차 (2020년 기준)	법원사무	1,535	83	81.667
	등기사무	243	22	75.000
2차 (2019년 기준)	법원사무	79	10	58.250
	법원사무	21	3	57.450

연간일정 안내

+ 순환별 성격 및 활용 방법



집중정리

1·2차 동시 대비
요약서 단권화정리

기출해설

1차 대비
기출문제 해설

문제풀이

1차 대비
진도별 모의고사+강의



1순환

12월~5월

- 수험서의 실전적 단권화 정리 과정
- 기본이론과 리딩케이스(중요 판례)의 이해를 위한 상세한 강의를 통해 선이해 후암기의 기초실력 수립
- 주1회 이상의 확인용 모의고사를 통해 학습한 내용이 어떻게 지문화 사례화 되어 출제되는지 확인 및 연습

2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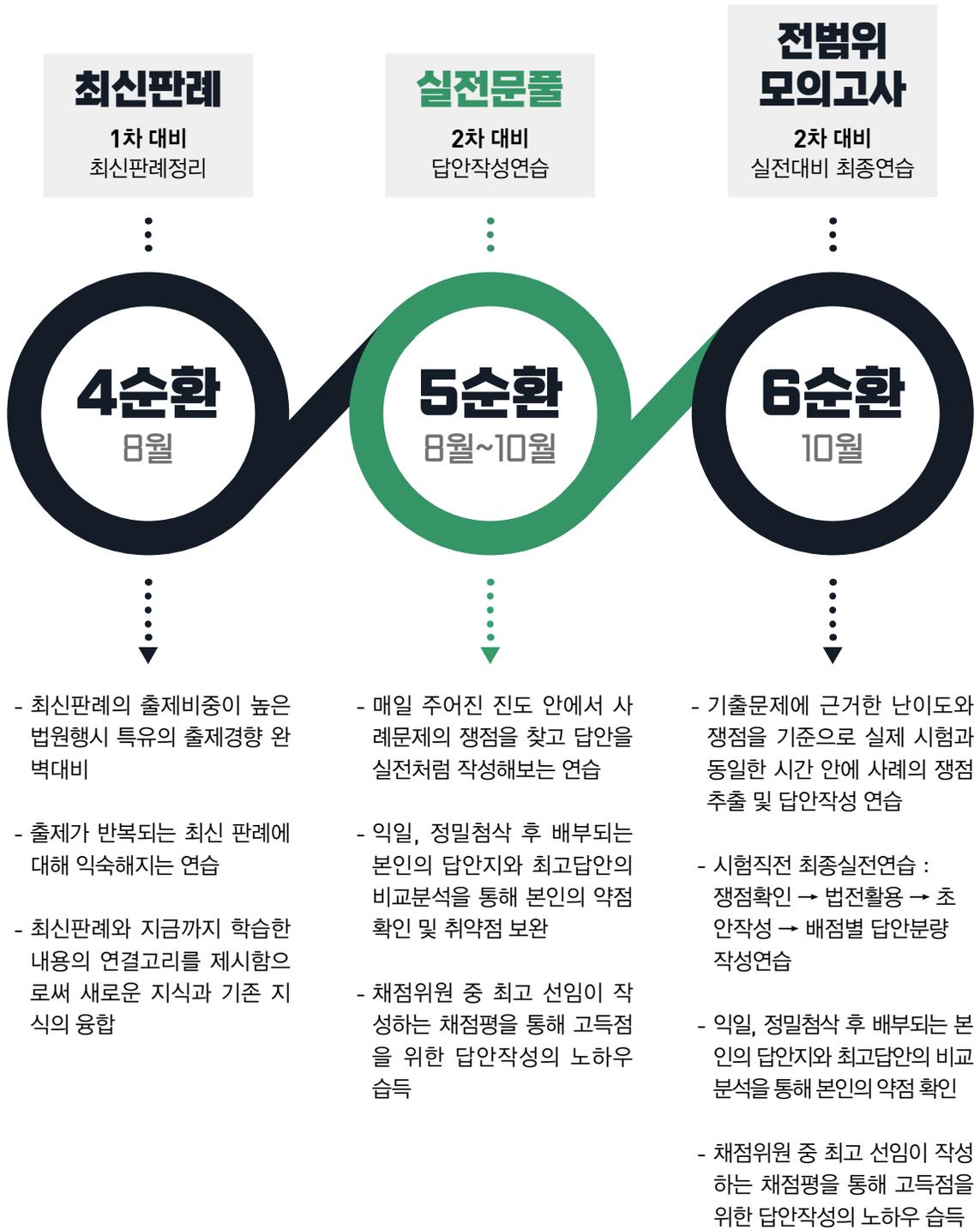
5월~6월

-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1순환에서 배운 지식의 실전적 정리
- 출제경향 파악과 동시에 출제 예상 중요쟁점의 정리

3순환

6월~8월

- “예습 → 시험 → 복습 → 정리”의 반복을 통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의 정리
-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에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풀이 연습
- 틀린 문제의 해설·강평을 통해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거나 몰랐던 부분의 정확한 이해
- 상세한 통계자료(문항별 정답률 분석표, 성적분포표, 전 응시 인원 성적일람표 등)를 통해 전체 수강생들 중 본인의 학업성취도 확인 점검.



전문강사진이 전하는 과목별 공부방법

+ 출제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



김남훈 변호사 **민사법**

I. 공통된 출제경향 및 수험대책

법원행정고등고시의 민법(객관식 포함)·민사소송법·상법·부동산등기법(이하 '민사과목'이라고 함)의 출제자 및 채점자는 법원행정고시 및 (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법원사무관, 법원서기관 등 100% 실무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사과목에서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하여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의 사례문제와 모의기록에 기초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중요 쟁점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판례들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사과목의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한 최근의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에서 강의하였던 중요 쟁점 및 사법연수원 시험문제에서 출제된 판례에 대하여도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의 결론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정리해야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화된 쟁점과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사과목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까지 학습해야 합니다. 즉 법원사무직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의 중요 쟁점을 학습해야 합니다.

II. 민법공부방법론

다음 중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년 법행기출]

- ① 채권자취소권
- ②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③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④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1차 시험은 판례위주의 지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차 문제에서는 사례형 형태의 객관식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판례 중에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에 해당하는 판례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의 기출문제와 같이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의 합격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학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의 중요 법리를 학습해야 하고, 법원 사무 직렬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의 중요내용을 학습해야 합니다.
2. 2차 시험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학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2차 시험에서도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중요 내용을 전제로 한 판례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민법 교과서 수준을 넘는 범위까지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중요 내용을 학습해야 합니다.

III. 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

민사소송법은 재판실무를 경험하기 전에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러한 과목의 특성상 **실무적으로 중요한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쟁점**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술형 문제가 2~3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순수한 약술형 보다는 준수례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민사소송절차의 쟁점에 대한 최근의 판례**를 이해해야 합니다. 즉 **법원사무관에게 요구되는 민사소송법의 쟁점 위주로 학습**해야 합니다. 약술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요 쟁점의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약술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문집의 형태로 정리된 교재의 목차를 무작정 암기하는 것으로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제자들이 **단문집의 목차를 암기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술형 시험은 암기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 형식의 교재로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9년 시험에서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라는 식으로 학설의 내용까지 서술해야 하는 문제(제1문의 1)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학설의 입장까지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0년 개정3판에서부터 중요한 학설의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

IV. 상법공부방법론

상법은 주로 **회사법에서 50점 분량의 사례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약술형 문제가 평균적으로 2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준수례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약술형 문제가 1문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에는 약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 위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최근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 중요한 판례들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2017년 시험에서 이미 출제가 되었지만, 당분간 출제가 계속될 수 있는 판례이므로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 2020년도 문제도 모두 최근 판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V. 부동산등기법 공부방법론

부동산등기법은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에 서술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최근 예규와 선례의 내용을 추가하여 약술형과 준수례의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의 기본내용을 학습한 후에, 최근의 대법원 예규와 선례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VI. 강의진행방향

법원행정고등고시는 합격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고득점이 반드시 필요한 시험입니다. 즉 **소수의 실력 있는 수험생만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평범한 공부방법으로는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제자들이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를 합격한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특히 2차 시험에서는 실무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쟁점을 정리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제자와 채점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최적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남훈 변호사는 강의를 시작한 **2007년 겨울부터 매년 사법연수원 예비과정 강의(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클릭 대비 등을 위한 민사재판실무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 겸임교수로 출강하여 민사법 과목(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을 선별하고 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까지 포함하여, **민사과목에서 합격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동시에 강의**할 수 있습니다.

민사과목이 하나의 과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실무가 강사로서, 합격에 필요한 최고의 적중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2

이재상 박사 **형법**

I. 총평

법원 행정고시의 관건은 객관식 문제와 논문형 필기시험(사례 문제)을 1년 이상의 유예제도 없이 불과 2 개월의 차이가 나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법원행시 시험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공부방법이 법행시 시험에 최단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가 하는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만 말하자면 먼저, 형법 1차 객관식 문제는 핵심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형법조문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잘 정리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법 2차 사례 문제는 형법각론의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답안작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공부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II. 1차 객관식 문제 대비

(1) 당연히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법행 객관식 문제는 당연히 철저히 판례위주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론 문제도 제35회 법행 1차에서 4개 지문이 출제되기는 하였지만, 형법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도 될 수 없었습니다. 제36회 시험에서도 형법 중요이론지문이 출제되었지만, 단 1개 지문만이 출제되었을 뿐입니다.

수험생들은 기본서를 선택할 때에도 기본서의 전체 분량이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분량의 판례를 수록한 교재를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판례도 중요판례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판례를 모두 다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 : 법행, 변시나 사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 + 최신 3년간 중요판례.

→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시사성이 있는가, 중요쟁점을 담고 있는가, 누적된 판결의 연결선상에서 나온 판결인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인가 하는 것이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모든 기출판례에 법행, 변시 그리고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가 누적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의 중요도를 바로 손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서가 중요합니다.

(3) 판례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판례와 결론만 암기해도 되는 판례를 구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법행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판례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① 법행에서는 중요이론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는 대신, 판례와 이론이 모두 담겨 있는 중요쟁점에 대한 설시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핵심판례의 기본취지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② 반면,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판례의 결론만 물어보는 지문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판례를 학습하는 속도가 관건입니다.

(4) 형법조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법이론 문제가 불과 몇 지문밖에 출제되지 않는 대신, 형법조문과 관련된 문제는 3-4개 정도 출제됩니다. 지문으로는 5지 선다형을 기준으로 한다면, 15-20 지문 정도 됩니다. 지난 제38회 법원행시 형법 1차 시험에서도 4개의 형법조문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형법에 대한 기초지식들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이 부분이 잘 정리된 기본서를 고르는 것으로 손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5) 지난 36회, 37회 1차 시험에서는 순수 이론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불과 1~2 지문에 불과하여 1차 시험에서 이론문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제38회 법원행시 형법 시험에서는 이론지문이 단 1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III.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 문제) 대비

(1)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사례 해결의 핵심입니다. 사례 문제는 100% 사실관계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객관식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결론만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도 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례의 기본취지를 2줄 정도로 압축하여 답안지에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안지에는 핵심내용만이 들어갑니다. 2차 시험 답안지 1장, 4쪽은 생각보다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답안지를 짧게 기술하는 방법을 익히고 또 익혀야 합니다.

(3) 법원 행정고시 사례 문제의 출제 패턴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사시나 변시는 이론쟁점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확실하고 또 규칙성이 있어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그러나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법행시험은 이러한 패턴을 익히기에는 판례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수험전문가들로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중요판례의 내용을 사실관계와 취지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기본적인 공부 방법만 잘 유지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4) 사례풀이의 기본틀을 익혀야 합니다.

사례 문제를 풀어내는 기본틀을 반드시 연습하여야 합니다. 이하 사례형문제를 푸는 방법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실관계의 분석

사실관계의 분석은 사례해결의 출발점이다. 사실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 * 사례를 통해서 나타난 명백한 사실관계는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 애매한 사실관계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검토해서 분석한다.

② 사안에 관한 쟁점의 정리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주어진 사안에서의 쟁점을 검토할 순서에 따라 개념적으로 추출·정리하여야 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논점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중요한 논점이라고 하여 그것만 열심히 분석하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빠뜨려서는 안 되는 논점을 제외한다면 답안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본인의 노력에 비해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③ 사안의 체계적 검토와 쟁점에 대한 해결

범죄체계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대로 가벌성 여부를 심사·확정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쟁점들을 해결한다. 위법성과 책임은 사례에서 특별한 사유가 언급되지 않을 때에는 단순히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언급을 하면 된다.

사안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여 그에 따라 범죄의 성부 내지는 그 근거가 달라지는 곳에서는 실무위주의 법원 행정고시의 특성상 학설의 소개는 아주 최소화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생략도 가능), 판례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내릴 경우 무난한 답안이 될 수 있다.

④ 결론과 죄수관계

결론 그 자체보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논증과정이 중요하므로 이를 간단히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며, 여러 범죄가 성립한 경우는 반드시 그들 사이의 죄수관계를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IV. 상법공부방법론

사례 문제는 반드시 판례 중 Leading Case, 즉 A급 쟁점 위주로 출제됩니다. 이러한 leading case는 사례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객관식 문제 중 제일 중요한 쟁점들이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 2차는 학습하는 방법론만이 다른 것이지 그 내용을 익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결국 판례의 Leading Case의 학습은 사례 문제, 객관식 문제를 동시에 대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V. 2019년과 2020년 법원행시 1차, 2차 시험 평가

(1) 2019년

- ① 형법 1차 시험은 통상적인 출제형태인 판례위주의 문제구성이 대세였습니다. 최신판례, 중요판례, 기출판례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졌고, 2018년도에 비하여 지엽말단의 판례가 출제되는 비율은 대폭 줄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나 실무와 관련된 판례의 출제비중이 조금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 ② 2차 시험에서는 2018년에 비하여 훨씬 당혹스런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 ㉠ 준수사례형 문제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출제되었습니다.
 - ㉡ 아주 오래간 만에 단문형식으로 '동시범의 특례'가 출제되었습니다.
 - ㉢ 사례형 문제도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길게 늘려놓고, 결가지 상황들을 많이 심어 두어 핵심쟁점을 바로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2020년

- ① 형법 1차 시험은 더욱 더 통상적인 출제형태로 회귀하였습니다. 최신판례, 중요판례, 기출판례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졌고, 특히 준강간의 불능미수나 동산담보, 부동산저당과 배임죄의 성부와 같은 엄청나게 중요한 최신판례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법조문과 관련된 문제가 4문제나 출제되어, 그 비중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지난 제37회 시험에서는 형법조문과 관련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던 것에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론에서 17문제, 각론에서 20문제, 총 각론 혼합 3문제로 구성되어 총 4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중 형법조문 문제가 4문제입니다.
- ② 매우 당혹스러웠던 제37회 시험에 비하여 제38회 형법 2차 시험은 다시 종전의 형태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예년에 비하여 많이 쉽게 출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 사문서위조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개죄 등 문서죄 전반에 걸친 쟁점들을 문제화하여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판례의 논지를 답안지에 잘 정리하여 기술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평이한 형태의 출제였습니다.
 - ㉡ 허위공문작성죄와 같은 진정신분범에서 나타나는 공범의 문제가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출제되었는데, 2020년도 변호사시험에서도 출제된 쟁점으로 이미 학원 모의고사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던 쟁점입니다.
 - ㉢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관련된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 1차 시험에 이어서 2차 시험에서도 출제되었는데, 이 부분 역시 출제가 매우 강력하게 예상되어 여러 차례 모의시험에서 써봤던 쟁점이었습니다. 출제되기를 고대하였던 쟁점이었던 만큼 무난하게 답안작성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제2문에서 출제된 '윤락녀 화대착복' 사건은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와 연계된 쟁점으로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횡령죄, 사기죄, 공갈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각종 고등고시 국가시험에서 아주 여러 차례 출제되었던 쟁점입니다.
 - ㉤ 마지막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관계는 이미 제32회 법원행시 2차 시험 제2문에서 출제된 바 있는, 기출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2순환 기출문제풀이에서 다루었던 기출쟁점으로 역시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③ 1순환 기본강의부터 6순환 전범위 사례 모의고사까지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합격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고 또 믿습니다.

03

이재철 교수 **형사법**

I. 들어가며

현재 시행되는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법원행정고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에 형사법 과목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공부방법론과 강의계획을 간단히 적어드리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시험경향

1. 형법

형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공통된 과목입니다. 1차 시험에서의 형법 문제는 대다수의 판례문제와 이에 조문문제가 더하여 출제됩니다. 특히 조문과 판례 모두 지엽적인 부분까지 묻고 있으므로 공부량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에서의 형법 문제는 종래에는 주로 각론에서 판례를 내용으로 하는 사례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만, 2019년에는 이에 더하여 총론상의 이론문제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문제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된 이론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종래의 판례위주의 공부에서 총론상의 이론문제까지 모두 공부하여야 하므로 이 역시 공부량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다소 평이한 듯한 기본적인 판례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어차피 선발인원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므로 답안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서술하였는지도 중요하므로 이 역시 공부량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2차 시험에만 있는 과목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문제를 보면 고소에서부터 수사, 증거, 항소 및 재심문제까지 형사소송법 전부분을 망라하여 판례문제를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도 2차 시험과목이지만 형사소송법 전 파트에 걸친 이론과 조문 및 판례를 숙지하여야 하므로 이 역시 공부량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II. 형사법 공부방법론

1. 체계를 정립하고 조문과 기본이론을 충실히 익히자.

판례가 시험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여 기본이론지식없이 판례만 공부할 수 있을까? 답은 “No.”입니다. 법학은 기본적으로 조문과 이를 해석하기 위한 이론 그리고 조문과 이론이 실제 사건에 적용된 판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문과 이를 해석하기 위한 이론을 정확하게 익히지 않으면 판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제위원들이 판례를 문제로 내는 깊은 뜻은 수험생들이 조문과 기본이론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실제 사안에서의 응용력을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행정고시 형사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사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확립하고 기본이론을 충실히 익히셔야 합니다. 특히 2차 시험에서 판례의 법리를 답안에 현출하고 불의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이론을 충실히 익히셔야 합니다.

2. 판례를 분석하자.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순히 외우려고 하기 보다는 판례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론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판례를 보았을 때 판례를 보다 깊이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1차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2차 시험에서도 판례의 법리를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례문제를 대비하는 방법

2차시험 문제의 주류가 판례문제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사례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① 먼저 기본이론과 조문 및 판례를 충실히 익히신 후 ② 그 다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시험 기출문제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례문제를 충분히 익히신 후 ③ 마지막으로 최신 판례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집중 분석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V. 강의 계획

1. 형법

(1) 1순환

1순환에서는 저의 「Law Man 형법(2021년판)」 교재를 바탕으로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법의 기본지식인 조문과 이론 및 판례를 충분히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순환

2순환에서는 저의 「Law Man 형법 고득점 0X집(2021년판)」 교재를 바탕으로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 기출지문과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지문에 대한 해설을 해 드립니다.

(3) 3순환과 4순환

3순환에서는 1차 시험을 위한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풀이와 해설을 하고, 4순환에서는 최신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4) 5순환

5순환에서는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진도에 맞추어 법원행시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이나 법무사시험에 출제된 문제들 중 법원행시 2차에 출제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해 드리고, 기타 2차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기본 문제와 중요 판례에 대한 해설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모의고사를 통하여 실전답안작성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6순환

6순환에서는 실전을 대비하기 위한 전범위 모의문제를 통하여 최종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형사소송법

(1) 1순환

1순환에서는 저의 「Law Man 형사소송법(2021년판)」 교재를 바탕으로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지식인 조문과 이론 및 판례를 충분히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 5순환

5순환에서는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진도에 맞추어 법원행시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이나 법무사시험에 출제된 문제들 중 법원행시 2차에 출제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해 드리고, 기타 2차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기본 문제와 중요 판례에 대한 해설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모의고사를 통하여 실전답안작성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6순환

6순환에서는 실전을 대비하기 위한 전범위 모의문제를 통하여 최종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동주 교수 헌법

I. 헌법공부의 특성

헌법은 정리부담이 큰 과목으로서 장악력의 형성여부에 따라 수험생 간의 점수 폭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수험생일수록 헌법과목에서 의외의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론적 논의에 비해 제도적 이해를 요하는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은 헌법과목의 특성** 때문입니다.

헌법은 한 번 정리를 잘해놓으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효자과목입니다. 따라서 먼저 **헌법과목에 대한 수월한 정리의 방편을 마련한 후 방대한 타 과목의 학습에 여력을 투자**하는 것이 전통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방법입니다.

헌법과목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그 핵심적인 의미는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학습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체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출문제의 비교분석적 고찰이 요청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체계적 학습방법

1. 이해와 정리

헌법과목을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한 출발점은 헌법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헌법의 규범구조를 헌법이념에 기초한 생성, 발전 과정으로 도해한 수형도(樹型圖)의 틀 속에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① 헌법은 국가조직법으로서 목표조항인 기본권과 수단조항인 통치구조 및 일반이론인 헌법총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② 헌법학 중 헌법총칙에 관한 헌법총론은 '헌법과 헌법학', '대한민국헌법총설'로 구성되어 있고, ③ 이 중에서 '헌법과 헌법학'은 '헌법의 의의', '헌법학 연구',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헌법의 수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④ 이러한 주제들의 쟁점은 다시 이론·조문·판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학문체계가 함께 이해됨으로써 헌법수험의 유기적·체계적 범주가 정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르는 학문체계를 파악하면서 주제별 중요쟁점을 학습하는 것이 바로 헌법공부의 시작입니다.** 한편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최고규범으로서 추상성을 갖고 있는 바, 그에 관한 해석의 필요성이 큰 반면에 해석의 결과물 또한 다소의 추상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어 행정법 등 구체화입법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정리부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헌법수험에 있어서는 대강의 이해만으로는 정확한 지식이 요구되는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이해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정리요소와 함께 적극적인 암기까지 요하는 정리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키워드의 분석 정리, 핵심쟁점요소의 두문자정리 등의 적극적인 정리방법을 동원하여 정확한 지식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선택과 집중

강의 및 교재, 공부방법 등 현존하는 다양한 수험도구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이 선택된 후야 비로소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한 바, 자칫 자료의 홍수에 파묻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수 있으니 선택과 집중은 헌법수험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선학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수험헌법의 범주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강을 권합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시험이 요구하는 지식의 범주를 인식한 후 집중력을 투여해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강의수강을 통해 수험교재를 실전적으로 정리한 후 당해 범주의 지식체계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III. 구체적 학습방법

1.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

객관식 헌법시험의 대상범위에는 이론, 조문, 판례, 사례가 포괄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헌법적 관념의 출발점은 성문헌법전을 구성하는 헌법조문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이며, 학자들의 무권적 해석의 결과와 통합하여 헌법이론으로 체계화됩니다. 따라서 헌법수험의 구체적 대상은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한 유권적·무권적 해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체계적 연관관계 하에서 방대할 수밖에 없는 헌법과목의 수험영역을 객관적으로 한정하여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출문제의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학습이 핵심입니다.**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성 있는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고, 모든 문제영역에는 출제자의 출제의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즉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학습범주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2. 헌법조문 및 헌법판례 중심의 학습

우선 전문과 본문 13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헌법조문은 헌법적 논의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헌법학의 요체인 만큼 법원행정고시에서도 중요한 출제대상**이 됩니다. 헌법조문은 헌법수험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학습 및 최종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므로 평소 기본교재 등의 학습과정에서 단원별, 주제별로 대응하여 관련된 헌법조문을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법학과목은 판례시험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완성도 높은 판례가 법학이론을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과 판례가 복수정답의 시비 등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가장 객관화된 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험경향에 비추어 볼 때 객관식 시험의 포괄적인 대상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강약조절이 필요한바, **중요판례 및 판례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론·조문을 중심으로 확장력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수험적합성 있는 학습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IV. 법원행정고등고시 출제경향 분석

헌법과목은 기본적으로 이론, 조문, 판례, 사례를 묻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행시 헌법시험에서 출제가 빈번한 부분이자 정리부담이 큰 수험영역으로는 헌정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헌정사'는 우리나라 입헌정치사의 연혁적 의의 및 취지, 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적 사항들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국회와 법원' 부분은 부속법률의 정리량이 방대한 영역이지만 시사적 이슈가 결부되거나 중요판례들과 관련된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부분은 헌법재판의 일반적 심판절차 및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제도의 도입 및 운영의 취지에 직결되는 판례 및 관련 조문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행시 헌법시험에서 출제가 유력한 부분이자 불의의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최신판례를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최신판례들은 대부분 기본서나 문제집 등에 수록·반영되어 있지만, 시험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선고된 판례들은 특강이나 교재를 통해 별도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최신판례 문제는 대부분 결론 위주의 판사사항 정리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므로 학습부담은 크지 않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할 경우 아쉽게 고배를 마셔야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여야 합니다.

15

임웅찬 변호사 행정법

I. 행정법에 대한 이해

행정법은 행정행위(행정작용편)와 그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행정구제편)을 큰 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법 각론은 총론과 다소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행정작용 중 이론적 체계를 갖고 공부하는 개별행정작용법과 기타 행정조직, 공무원, 지방자치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판례 등을 통하여 확립된 이론을 기초로 공부를 하므로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총론은 세분화된 법률의 개괄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대집행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행정작용은 행정구제에서 소송상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예를 들면,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과 소송법적 문제, 부관에 관한 독립쟁송 가능성과 독립취소 가능성의 문제,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에 대한 다툼의 대상의 문제, 하자의 승계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행위와 위법한 행정행위의 구별, 즉 청구취지에서 취소하는 처분과 청구원인에서 위법한 처분의 구분 등) 양자를 유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행정구제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청구, 손실보상 등 금전으로 배상 또는 보상받는 방법, 위법한 행정행위를 직접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행정법은 이론, 판례, 소송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II. 행정법 시험대비 방법론

1. 이해 중심의 공부

행정법은 일용 체계가 없어 여러 분야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 정치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 분야를 조금씩 다루고 있지만 일반 법리를 기초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깊이 있는 이해를 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법 사례형 문제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인지, 전체 행정법 체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깊이 있는 이해를 요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2. 판례 및 사례 공부

행정법은 대법원 판례 공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공부할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판결 이유 중 핵심 부분만 읽지 마

시고, 하급적 판결 전문을 찾아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수험생은 시간이 많지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판결을 읽을 수 없고, 각 쟁점에서 리딩케이스가 되는 한 두 판례 정도를 정독하여 읽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판결을 읽을 때는 ①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②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을 정리한 다음, ③ 그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였는지, 그 판단의 근거로 든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방법으로 판례를 공부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때는 하급심 판결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 공부를 할 때도 문제를 보고 답안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인 쟁점이고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질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III. 수업방식

수업은 사례를 기초하여 이론을 끌어내고, 이론을 토대로 사례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기본을 탄탄히 한 다음에 심화학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합반

특전



종합반이 왜 유리한가?

● 1. 모든 강의에 종합반 최우선 배정

- 종합반 우선 배정 후에 단과 수강생의 접수를 진행함으로써 마감 걱정 없는 안정적인 수험계획 수립 가능

● 2. 종합반 정규과정 전강좌 전교재 무료제공

- 종합반 커리큘럼에 포함된 모든 정규순환 강의의 주·부교재 제공 (월비스 출판사 출간 교재에 한함)

● 3. 수강한 모든 강의에 대한 복습용 동영상강의 무료제공

- 실강으로 수강한 강사의 강의에 한해 복습동영상 무료 제공 (강의당 1회에 한함)

● 4. 파격적인 수강료 할인

- 단과 수강료 대비 약 35% 할인혜택
- 정규과정 외 특강 수강시 35% 할인혜택 제공

● 5. 전문강사진과의 상시 질의응답

- 법학전문 강사진을 개인 멘토로 활용

● 6. 담당팀장 및 실무진의 밀착관리

- 순환별 출결체크, 주간 학습현황 기록지 작성, 상시상담 진행

1·2차 대비 집중정리 강의 시간표



과목	강사	시간	일정	회차	교재
민법 (1·2차 동시대비)	김남훈 변호사	오전	12/28(월)~1/21(목) 월~금 강의 ※ 오전, 오후 연강 ※ 1/1(금) 휴강	36	Essential 민법(저자, 2021년판, 근간) ※ 친족상속법 포함
형법 (1·2차 동시대비)	이재상 박사	오후	1/22(금)~2/22(월) 월~토 강의 ※ 설연휴(2/11~14) 강의없음	24	① 로스쿨 형법(저자, 2021년 개정판, 근간) ②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 (저자, 2020년판)(제공) ③ 형법기본강의 OX 복습자료(매일 제공)
	이재철 교수	오후	1/29(금)~2/24(수) 월~토 강의 ※ 설연휴(2/11~14) 강의없음 ※ 신림본원 진행유의	20	「Law Man 형법(저자, 2021년판, 근간)」 + 보충자료(제공)
헌법 영상강의 2020년 강의	선동주 교수	추후 공지	2/23(화)~3/15(월) 월~토 강의 ※실강없음, 영상반 진행(2020년강의)	18	헌법집중(저자, 2020년판, 제6판)
민사소송법	김남훈 변호사	오전	3/16(화)~4/2(금) 월~금 강의 ※ 3/19,22,26,29 오전-오후 연강	18	Essential 민사소송법 (저자, 2021년판, 근간)
형사소송법	이재철 교수	오후	4/3(토)~4/23(금) 월~토 강의 ※ 강남본원 진행	18	「Law Man 형사소송법 (저자, 2021년판, 근간)」 + 보충자료(제공)
행정법	임용찬 변호사	저녁	4/24(토)~5/14(금) 월~토 강의	18	신행정법특강 (홍정선 저, 2021년판, 제20판, 박영사) + 각자 교재

강의시간 오전강의 - 오전 9:30~13:00 | 오전강의 - 오후 2:00~5:30 | 오전강의 - 저녁 7:00~10:30
※ 강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강의계획서를 꼭 참고하세요.

수강특전 ① 6과목 수강신청시 30%할인 및 복습동영상 100%제공[2021년 6월까지, 일시정지, 기간연장 불가]
② 3과목 수강신청시 10%할인 및 복습동영상 50%제공[2021년 6월까지, 일시정지, 기간연장 불가]

기타 특강



과목	강사	시간	일정	회차	교재
형사소송법 기본강의 신림	이재철 교수	오후	1/11(월)~1/27(수) 월~토 강의 ※ 신림본원 진행유의	15	「Law Man 형사소송법 (저자, 2021년판, 근간)」 + 보충자료(제공)
형사특별법 신림		오후	2/25(목)~2/27(토) 수~금 강의 ※ 신림본원 진행유의	3	「Law Man 형사특별법 (저자, 2021년판, 근간)」 + 보충자료(제공)

신림본원 강의안내 - 강의명에 **신림** 이라고 표시된 강의는 강남본원이 아닌 신림본원에서 강의를 진행됩니다.
- 신림본원 오시는 길 : 서울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4층) | TEL : 1544-1881



“

법학교육의 名家,
한림법학원이 제대로 시작합니다.

”

수험전략 설명회는 1:1심층상담으로 대체됩니다.

12/19(토) 오후 2차 → 1:1 개별 심층 상담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정부 방침에 따라 설명회를 대신하여 1:1 개별 심층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예약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일시 : 2020.12.31까지
- 상담시간 : 오전11시~오후5시
- 상담예약 : 1544-1881(ARS 1→4)
- 상담장소 : 한림법학원 강남분원 (역삼역 4번출구에서 3분거리, 강남구 테헤란로19길 18(역삼동))
- 주의사항 : 내방시 QR코드 출입체크, 체온체크 필수입니다.